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 <하녀>(1960) 스틸이미지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4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8편의 기존 작품과 이번에 등록된 4편을 포함하여 총 12편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영화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제작된 전창근 감독의 영화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1958년 개봉한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사실주의(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0년 개봉한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는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한국영화사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1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특수 렌즈로 찍은 촬영본을 넓은 화면(와이드 스크린)에 생생한 색감으로 구현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다.

이번 등록을 계기로, 영상자료원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화 필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튜브 바로가기
- <낙동강>(1952, 전창근) https://youtu.be/a26p123HbuY?feature=shared - <돈>(1958, 김소동) https://youtu.be/sCnXUoD2lmw?feature=shared - <성춘향>(1961, 신상옥) https://youtu.be/saJlTTdCv-8?feature=shared

등록 고시 개요

- ☐ 문화유산명 :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 ☐ 종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수 량 : 4건
- ☐ 제작 연대 및 규격

문화유산명칭(안)	수량	길이(feet)	제작년도 (개봉일자)
낙동강	1건 (이미지 사운드 각 2권)	3,231	1952년 (1952.11.15.)
돈	1건 (이미지 15권, 사운드 14권)	22,647	1958년 (1958.3.9.)
하녀	1건 (이미지 11권, 사운드 10권)	20,194	1960년 (1960.11.1.)
성춘향	1건 (이미지 10권, 사운드 9권)	19,777	1961년 (1961.1.28.)

- ☐ 소 유 자 : 한국영상자료원
- ☐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01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
- ☐ 등록 사유
 - 전창근 감독의 「낙동강」은 한국전쟁기(1952년)에 제작되었고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전쟁의 참상이 기록되어있으며, 전시상황에서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은 당대 문화예술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음.
 - 김소동 감독의 「돈」은 1958년 개봉한 영화로 순박한 농사꾼 주인공을 통해 당대 문제가 되었던 농촌 고리대, 사기꾼의 성행 등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임.
 - 김기영 감독의 「하녀」는 1960년 개봉한 영화로 2층 단독주택으로 상징되는 중산층 가족과 그 집에서 신분상승을 꿈꾸는 하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드러낸 작품으로 한국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임.
 -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1961년 개봉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화려한 색감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며,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이자 해외 영화제에도 출품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으로 영화사적 의의가 높음.